

옛사람(*palaios anthropos*)과 새 사람(*kainos anthropos*)

오늘은 옛사람(*palaios anthropos*)과 새 사람(*kainos anthropos*)의 Life Style 대해 공부를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 : 22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좇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에베소서 4 : 23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4:23 And be renewed in the spirit of your mind;(KJV)

4:23 to be made new in the attitude of your minds;(NIV)

에베소서 4 : 24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4:24 And that ye put on the new man, which after God is created in righteousness and true holiness.

(질문) 여러분들의 신앙 생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처음 태어나는 것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중생한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는 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중생한 사람은 반드시 성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중생없는 성화가 있을 수 없고, 성화없는 중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화의 양으로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성화가 없는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 : 4 에서,

베드로후서 1 : 4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한다는 것과 성화 한다는 것과 하나도 다른 말이 아닙니다.

중생한 그리스도 인은 반드시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1. 그러면 성화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아주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그러면 옛사람은 무엇이고 새사람은 무엇입니까?

옛사람이 무엇인지 새사람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우리의 종착역이 어디인지를 압니다.

오늘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것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못해주기 때문에 교회가 천국 가는 대합실 정도로 변했습니다. 여러곳으로 가는 사람들이 모여서 우왕좌왕 모여서 와글와글대는 장소가 된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입니다.

먼저 옛사람은 무엇입니까?

옛사람을 알기 위해선 육을 알아야합니다. 성경에는 육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육이 무엇입니까?

육은 영어로는 FLESH 이고 원어로는 SARX 인데, 이것은 몸, BODY 가 아니고 “타락한 아담이 후손에게 물려준 타락의 본질”이 육입니다.

그러면 육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저와 공부할 때 다 공부한 것이니 기억나는 분은 대답해 보세요.

아담이 후손에게 물려 준 타락의 본질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인데 이것의 본질은 독립성과 무의탁성입니다. 아담의 형질을 타고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으로 부터 독립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않고 내힘을 의지하여 살겠다는 마음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인이라고 하는 소크라테스나 공자나 석가나 범인(凡人)이나 모두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석가가 하나님 잘 섬기고 그 분을 의지하고 살라고 말하는 것 들어 보셨습니까?

공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 들어 보셨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부터 독립하여 자기를 의지하고 살아 갑니다. 이것이 바로 원죄이며 육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원죄가 사람 안에 거한다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17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칼빈은 ‘내속에 거하는 죄’가 바로 육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객관적으로 거하던 죄가 사람 안에서 인격화 한 것이 육입니다. 죄와 육은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육은 객관세계에 그냥 거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서 인격을 형성합니다. 이 죄가 우리안에서 형성한 인격을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이 각기 독특한 옛사람의 인격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저에게만 독특한 인격이 있고 백장로님에게는 백장로님에게만 독특한 인격이 있습니다. 이 예사람의 인격은 그 사람의 타고난 기질, 자라난 환경, 교육정도 모든 것이 복합되어 옛사람의 인격을 구성합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죄는 이 옛사람을 통하여 사람을 지배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가 “저 사람이 죽으면 지옥에 올테니까 그 때가서 내 마음대로 저 사람을 요리해야지” 하는 것이 아니고, 살았을 때 부터 그 사람 안에 옛사람을 만들어 놓고 이 세상에 살 때부터 아주 효과적으로 지배합니다. 마귀는 뒷짐을 쥐고 구경만 하고 있어도 옛사람이 알아서 자유의지로 죄를 짓도록 만듭니다.

세계일차 대전, 이차 대전, 인류 역사 이래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모든 전쟁이 다 이런 것 아닙니까?

새사람으로 살기 위해 이 옛사람을 다 벗어 버리라는 것입니다.

독립성과 무의탁성의 굴레를 벗어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죄의 속박을 다 벗어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시작입니다.

2. 옛사람은 벗어 버릴 수 있는 것인가?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십시오.

에베소서 4 : 22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좇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에베소서 4 : 23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에베소서 4 : 24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옛사람을 벗어 버리라고 권면합니다.

옷은 몸이 아닙니다. 옛사람은 낡은 옷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벗어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몸위에 걸쳐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벗어 버릴 수 있습니다..

옛사람은 중독과 비슷합니다. 알코홀 중독자는 알코홀에, 니코틴 중독자는 니코틴에 중독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옛사람은 죄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알로홀 중독자가 알코홀에서 니코틴 중독자가 니코틴 중독에서 벗어 날 수 있듯, 옛사람은 벗어 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말하면, 아담의 타락은 인성의 본질에 변화를 일으킨 것이 아니고 지배자의 변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십자가의 은혜에 의해 그 지배를 벗어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벗어 버릴 수 있게 된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 옛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여겨 주시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 : 6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¹이라고 하여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 하나님께서 2000 년전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여겨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옛사람이 2000 년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만약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여기서 오해하는 것은, 옛사람을 벗어 버린다는 것을 ‘나는 예전에는 이런 이런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변하여 이런 이런 삶을 살아 가고 있다’ 다시 말하면 옛사람이 변하여 새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죽은 것으로 여겨 주시는데 지금 변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변하는 것이 아니고 죽은 것입니다.

로마서 6 : 6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다고 하는 것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말이지, 옛사람이 변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죽은 것입니다. 변하는 것이

¹. 원어에는 Aorist tense 로 부정과거(KJV 에는 is crucified with. NKJV & NIV 에는 was crucified with)

아닙니다. 오늘날 성화에 대해 교회 안에서 만연되어 있는 오해가 바로 이 것입니다. 성화에 있어서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이지 옛사람이 변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도시에 있는 낡은 건물을 새건물로 짓기 위해 특수한 공법을 사용하여 아주 무너뜨리는 장면을 TV 로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낡은 건물을 고치는 것이 아니고, 험 건물은 무너뜨리고 새건물을 짓는 것입니다. 이것이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옛사람은 완전히 무너뜨리고, 새건물을 짓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사람을 짓기 위한 하나님의 공법(工法)입니다.

하나님의 공법은 무엇인가?

십자가의 공법입니다.

죽지 않으면 다시 살지 못하고, 죽지 않으면 새생명으로 사는 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반박을 합니다.

인터넷으로 저의 성경공부를 한 사람이 저의 카페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자기가 어느 감리교회의 장로라고 소개했습니다.

“원장님의 성경 공부를 하면 아담의 원죄를 타고난 옛사람에게 속한 것은 모두 죽어야 한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태어 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좋은 품성들도 모두 죽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죽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전제입니다. 죽지 않은 제물은 하나님의 제단에 드려질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하나님의 제단에 드려진 제물입니다². 그래서 제물이 되기 위해선 죽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전제입니다.

그러면 반만 죽은 제물은 어떨까요?

제물은 완전히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다까?

예수님은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면서

마태복음 15 : 17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². 로마서 15 : 16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마태복음 15 : 18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태복음 15 : 19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훼방이니

마태복음 15 : 20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어떻게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훼방뿐입니까? 좋은 말도 많이 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 이렇게 반대할
사람있습니까?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더러운 것만 있습니까?

좋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반대할 사람있습니까?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완전 타락하여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이런 악한 것만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육만 나온다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람은 선한 일을 하거나 악한 일을 하기 전에 육의 상태에 있다는
말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옛사람은 죽는 것이 아니고 죄의 지배에서 벗어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지 않았으면 해방도 없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공부한 것이 예사람은 죽은 것이다. 변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새사람에 대해 공부를 해 보십시오.

3. 새사람

새사람은 영어로는 New Man, New Self 로 번역되어 있고, 원어로는 kainos anthropos 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에 있어서는 새사람, kainos anthropos 는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kainos anthropos 는 ‘새로운 인류’ 가 문자적 의미로, 아담에 속한 것이 아닌 하늘에 속한
새로운 문화, 새로운 질서를 총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개인에게 적용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가 됩니다.

골로새서 3 : 10 새(νέος)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새사람(*kainos anthropos*)〉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모두 아담의 후예입니다. 그렇지만 새사람은 첫 아담, 땅에서 온
 사람의 후예가 아닌 하늘로 부터 오신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의 후예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5 : 45 기록된바 첫 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 주는 영이 되었나니

고린도전서 15 : 46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고린도전서 15 : 47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이 구절에서 첫사람은 누구를 말합니까?

인류의 시조인 아담을 말합니다.

마지막 아담은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을 말합니다.

둘째 사람은 누구를 말합니까?

둘째 사람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 또는 둘째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둘째 사람은 영어로는

second man 인데, 원어로는 δεύτερος ἄνθρωπος(*deuteros anthrōpos*)로 둘째 인류,

second humanity 가 더 적절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로운 인류의 시작으로 오신

마지막 아담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 second humanity 은 하늘로서 왔다는 말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 사람은 전체가 하늘로부터 왔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이 세상에 사셨지만, 우리와는 전적으로 다른 내적 실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첫사람 아담이 물려준 타락한 성품인 욕이 없습니다. 욕이 세상을
 살아 가면서 형성한 인격인 옛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지만 100% 하늘로부터 온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당연함은 예수님은 타락한 아담의 후손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반대로 우리는 타락한 아담의 후손이라 타락한성품인
 욕이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이와같이 예수님은 우리와는 전적으로 다른 내적 실존 상황에 계신
 분입니다.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사람이다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만 빼놓고 우리의 인격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는 둘째 사람 예수님을 따라 하늘의 것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새사람의 인격의 반만 하늘로 부터 왔다는 것이 아닙니다. 90% 만 그렇다는 것도 아닙니다. 100% 그렇다는 말입니다. 새사람은 몸만 빼놓고 그 사람의 인격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는 둘째 사람 예수님을 따라 하늘의 것으로 완전히 교체된 새로운 인격입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사람입니다.

새사람(*kainos anthropos*)은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인간의 새로운 내적 실존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 윤리적 용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새사람을 장성한 그리스도인, 부활과 연합한 새로운 인격의 사람(롬 6:4), 영에 속한 사람(고전 3:1), 온전함 사람 (엡 4:13) 새로운 피조물이다(고후 5:17),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지음을 받은 사람(엡 4:23)이라고 부르며 우리에게 그런 사람이 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4.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새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요?

교회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새로운 삶을 살아야지!

그리곤 맥없이 넘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결심합니다.

그리고 다시 맥없이 넘어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일평생 이것을 반복하면서 천국으로 갑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구원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전부입니까?

여기엔 구조적인 잘못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6 : 5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옛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었으면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야 하는데, 죽은 옛사람을 변화시켜 새사람으로 살려고 하니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을 살기 위해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가 부활하여 보내신 당신의 영이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과 연합하는 수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로마서 6:5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게 하시고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시고 그의 영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사람의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의 이런 최고의 영적 상태를

갈라디아서 2:20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결론>

우리의 신앙 생활에서 성화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화가 예사람을 벗어 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내세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모두 성화의 양에 관계한다는 것을 아시고 성화에 정진하시는 여러분이 되길 부탁드립니다.